

2020. 08. 1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572322?sid=101>

(요약) 굴뚝기업에도 친환경 바람... 두산중 한달간 95%, 현대차 67%올랐다

- 글로벌 변화와 국내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현대차, LG화학, 두산중공업 등의 주가가 동기간 코스피 상승률(14%)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반기 이익 증가 예상

현대차(005380), LG화학(051910), 두산중공업(034020)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후장대(重厚長大) 기업이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정책 기대감에 2차전지, 수소에너지, 풍력발전 등을 영위하는 중후장대 기업이 모처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200에 속한 중후장대 기업 중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개 종목의 주가는 최근 한 달(7월 13일~8월 13일) 동안 28%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의 평균 상승률(1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제주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이곳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는 모두 두산중공업 제품이다. / 두산 제공

이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두산중공업(034020)이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7월 13일 4600원에서 8월 13일 9010원으로 2배(95%)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모기업인 두산(000150)도 19% 상승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문 대통령이 지난 달 14일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한 후 연일

뛰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은 5년 안에 관련 사업 매출을 1조원으로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자동차계 망형인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도 한 달간 각각 67%, 32% 상승했다. 미국 수소 트럭 스타트업인 '니콜라'가 협력을 제안했다는 점이 주가를 견인했다. 두 기업이 손잡으면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15.6% 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철강업황 부진에 주가가 내리막을 걸었던 현대제철(004020)도 상승세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사업이 본격화되면 철재와 금속 분리판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13일 2만1050원에서 현재 2만8150원까지 올랐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비스(012330)도 최근 한달간 11% 상승했다.

코스피200 친환경 관련주 주가 변화 단위: 원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8월 13일

종목명	수정주가	등락률
두산중공업	4600원 9010원	95.87%
현대차	10만1500 17만	67.49
SK이노베이션	13만1000 18만2000	38.93
만도	2만3050 3만1750	37.74
LG화학	54만7000 73만7000	34.73
현대제철	2만50 2만8150	33.73
한화솔루션	2만4300 3만2300	32.92
기아차	3만3800 4만4900	32.84
한온시스템	9660 1만2750	31.99
S&T모티브	4만1900 5만3400	27.45
SKC	7만1400 8만9500	25.35
포스코케미칼	8만100 9만8000	22.35
삼성SDI	39만4000 47만1000	19.54
두산	3만7100 4만4300	19.41
효성	6만2500 7만2500	16
현대모비스	20만4500 22만8000	11.49
한화	2만3350 2만5850	10.71
후성	8000 8850	10.63
일진머티리얼즈	5만2600 5만4400	3.42
현대로템	1만6050 1만6000	-0.31

평균 상승률 28.614%

자료=한국투자증권, 에프앤가이드

2차 전기주의 활약도 대단하다. LG화학(051910)은 연초 30만원 초반대였으나 현재 70만원대로 올라섰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배터리사업에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 한달 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다.

LG화학의 라이벌사인 SK이노베이션(096770)과 삼성SDI(006400)도 한달동안 각각 39%, 19% 올랐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전기차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해주거나, 공용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친환경 사업에 진출한 굴뚝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로드맵을 공개했고,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친환경 공약을 제시해 기대감을 키웠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차량선박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친환경 기업은 정책 수혜를 볼 뿐 아니라, 본격적인 이익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2

차전지, 수소에너지, 풍력 산업과 관계있는 기업 67%가 하반기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 08. 18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18000006>

(요약) [ftM] 국제금값, 4개월만에 최대폭 상승...국제유가도 올라

- 미 경제 지표의 부진과 달러 약세에 더불어 워런버핏이 금광업체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이 공개되며 금값이 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 전문가들은 실질 금리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 가격이 당분간 계속 상승 압력 받을 것이라고 전망



국제 금값이 경제 지표 부진에다 달러 약세가 나 타난데다 워런 버핏의 금광업체 투자소식에 4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도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행 소식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25%(4890달러) 뛴 **1998.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액(달러) 기준으로 지난 4월22 일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지난주 주간 가격으로는 10주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한 금값이 다시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한 것은 미국 국제 수익률과 달러화 약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 국제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가치 회복에 따라 금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다른 안전자산으로 분산됐던 것이 금값을 끌어내린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와 안전자산인 금값 수요가 늘어났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8월 앰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37로 지난달 172 대비 135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예상치 19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날 10년 만기 미 국제 수익률은 0.676%로, 전 거래일의 0.708%에서 눈에 띄게 떨어졌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0.1% 하락했다. 특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업체 배릭골드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골드러시'에 다시 불을 붙였다.

TD 시큐리티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질 금리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금 가격이 계속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지난달 감산 약속 이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21%(0.88달러) 오른 42.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오후 2시50분 현재 배럴당 12%(0.52달러) 상승한 45.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0. 08. 2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127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요약) SK건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세대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공동개발해 특허 출원 완료
- 기존 발전 시스템은 거치형식이라 설치면적 확보가 어려웠는데, 창문형은 이것들을 보완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SK 건설과 알루이엔씨, 국영지앤엠이 개발했다. 개폐 가능한 아파트 창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했다. 외부 조망을 고려해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고,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10~30%까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세대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Operable BIPV 시스템'도 공동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SK 건설은 "기존 아파트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옥탑이나 축벽 등에 거치하는 형태여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는데,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SK 건설은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변화와 다양해진 고객 니즈를 반영해 18개 타입의 신평면도 선보였다. 이번 개발된 신평면은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기본 상품 업그레이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 위해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했다. 전용 84㎡에 적용되는 클린-케어 평면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했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UV 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했고,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했다.

수납공간 극대화

- 안방 대형 드레스룸
- 침실/알파룸 W.I.C

편리한 주방

- 작업동선이 편리한 주방순환동선

원투룸 옵션

- 생활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 가능
- 알파룸까지 추가해 두용으로도 사용 가능

안방 확장형

- 안방 확장형으로 실 사용면적 극대화

5Bay 판상형

- 5Bay 단위세대로 실 사용면적 극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FLEX 59'와 '캥거루 하우스' 평면도 선보인다. FLEX 59 평면은 벽과 기둥의 골조를 최소화해 고객 취향에 따라 기존 3베이 구조의 거실과 침실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30~40대 자녀 비율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캥거루 하우스 평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평면은 84㎡ 5베이 판상형 구조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하고, 원투룸 옵션을 적용하면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평면 등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2020. 08. 20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943641>

(요약) 태양광발전 설비 보조금, 50%서 최대 60%로 올린다

-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규모를 확대하자는 취지
- 특히 제조 과정 중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태양광 설비가 많은 혜택,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기준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관련 비용의 최대 6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 일 2020 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 신청을 20 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다. 3 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주택에 358 억원, 일반 건물에 145 억원 등 총 503 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제조 과정 중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태양광 설비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 발전량 1 kW당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계량화한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기준이 된다. 탄소배출량 1 등급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주택은 보조금을 50%에서 60%로 높인다. 건물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1 등급 모듈을 사용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가인 중국산 태양광 모듈 대신 국산 제품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2020. 08. 2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59256/>

(요약) **韓증시 댔친 2차 팬데믹 공포..."3월같은 폭락장은 안올 것"**

- 코로나19 확진자 세 자릿수 급증으로 인한 재확산에 외국인 기관 동시 매물 내놓으며 코스피 2400 → 2200 하락
- 개인투자자들이 하락장에 공격으로 매수하며 증시가 많이 버텼다는 분석... 3월 같은 폭락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2400대에서 2200대로 미끄러졌다. 20일 코스피는 2274.22로 마감해 전일 대비 3.7%나 하락했다. 코로나19 전 찍었던 연고점(2267.25)을 넘는 지 16일 만이고, 2400대에 진입한 지 9일 만이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차적 원인**이다. 두 자릿수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4일 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본격화하면서 세 자릿수로 늘어난 뒤 20일까지 계속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감은 더 크다. 20일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이달 30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는 앞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를 짓누르고 중기적으로도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미국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이어 개장한 아시아 증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국 주식시장 역시 이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소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검사 결과 대기자가 3월 3일 이후 처음으로 3만명을 웃돌았고, 서울 내 신규 확진자가 15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부담이 됐다"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 (필요했던) 추가 부양조치의 구체적 타이밍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FOMC는 일각에서 제기된 '수익률 곡선 관리' 등 추가 부양안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결국 이 같은 위기감이 그대로 증시에 반영됐다.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이후 7월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했던 외국인은 8월 들어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들어 20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1조7000억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도 2000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그동안 코스피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

견이 나온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재현하면서 그나마 증시가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했지만, 양대 증시에서 개인은 모두 순매수를 이어갔다.

코스피에서 개인은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의 주식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샀다. 8월 들어 계속 오르던 증시가 코로나19 2차 팬데믹 우려로 하락하기 시작한 14일 이후 개인은 4거래일 동안 1조5000억원어치 이상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지수는 2400대에서 2200대로 추락했지만 그나마 개인이 받쳐준 덕분에 이 정도 하락에 그쳤다는 얘기가 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1~2주가 고비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3월 1400대까지 코스피가 추락했던 수준의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주 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하단은 2100선 정도로,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도 "강세장에서 지수 조정은 10% 내외였기 때문에 앞으로 2150~2200선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도 요인이지만 이익 실현 욕구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가 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로나19로 국내 확진자 급증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계속되면 추가 물량을 더 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출되면 대규모 '셀 코리아'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연말로 가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확진자는 어떻게든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4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유동성에 따른 금융장세 성격이 강한데, 최악의 상황을 지난 실적 이 앞으로 반등해 코스피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2020. 08. 21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033200530?input=1195m>

(요약) [3보] 신규확진 300명대 급증...324명중 지역발생 315명-8일간 1천9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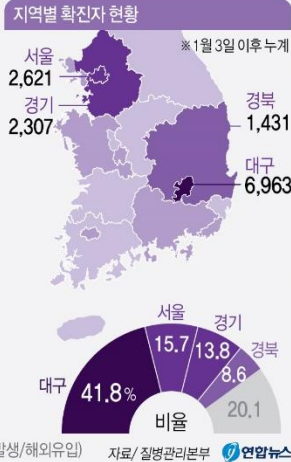
- 지난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 중...지역발생 확진자 최대 및 8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2천명에 달해
- 사랑제일교회 및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중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1일 0시 기준 () : 변동

확진자 현황				국내·해외유입 현황	
총 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국내 발생	해외유입
16,670명 (+324)	14,120명 (+57)	2,241명 (+265)	309명 (+2)	13,973명 (+315)	2,697명 (+9)

지역별 확진자 현황	
서울	2,621 (+125/+1)
부산	254 (+8/0)
대구	6,963 (+4/0)
인천	469 (+17/+1)
광주	251 (+5/0)
대전	185 (+6/+1)
울산	69 (+1/0)
세종	56 (+3/0)
경기	2,307 (+102/+1)
강원	104 (+9/0)
충북	93 (+3/0)
충남	237 (+11/+2)
전북	63 (+5/0)
전남	53 (+6/0)
경북	1,431 (+6/0)
경남	178 (+4/0)
제주	26
검역	1,310 (0/+3) (국내발생/해외유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로 급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번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3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2천명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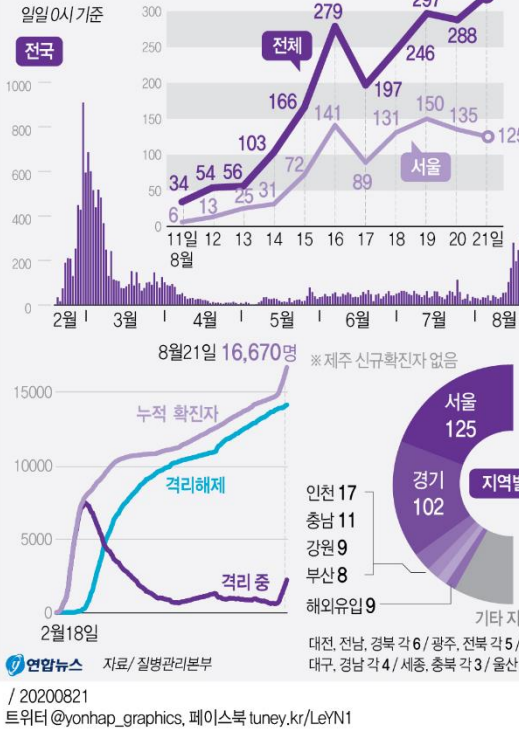
특히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본격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어 누적 1만6천6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일별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을 기록하면서 8일간 확진자는 총 1천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324명은 지난 3월 8일(전체 신규 확진 367명, 지역발생 366명) 이후 166일만에 첫 300명대 기록이자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최대 기록이다.

신규 확진자 324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9명을 제외한 315명이 모두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다. 이 밖에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대전전남경북 각 6명, 광주전북 각 5명, 대구경남 각 4명, 세종충북 각 3명, 울산 1명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3명이 늘어 누적 676명이 됐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장소만 150곳에 달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누적 18명이 됐다. 이는 집회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인원만 따로 분류한 것으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집회 참석자 33명과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용 정보를 통해 확인한 9명을 포함하면 전날까지 총 60명이 광화문 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서울 성북구 체육시설에서도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9명(서울시교육청 집계)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165명,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점 58명, 경기 안양시 분식집 13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 외에도 광주에서는 유흥시설(21명), 부산에서는 연제구 일가족(12명)에선 '영진607호'(11명)사상구 괘법동 영진볼트(10명)사상구 지인모임(9명), 충남에서는 천안 동남구 소재 동산교회(5명)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이 중 3명은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충남(2명), 서울경기인천대전(각 1명) 지역의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26명, 경기 103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247명이 나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 2명 늘어 누적 309명이 됐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Weekly News

주간 뉴스

2020. 8월 셋째주

